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5. 6. 15(월) ~ 6. 17(수)

출장지:　러시아, 하바롭스크

출장자:　정일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Ⅰ. 출장개요

1. 출 장 지: 러시아, 하바롭스크

2. 출장기간: 2015. 6. 15 (월) ~ 6. 17 (수)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일호	

※ 김동주 부원장은 연구원 운영관련 긴급한 협의로 인해 불참

4. 출장목적

□ 한·러 극동포럼 참석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

Ⅱ.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장소	주요 수행업무	관계자
6.15 (월)	인천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주 영빈관	(15:00) 숙소 도착 (16:00 ~ 19:00) 한·러 협력 다이얼로그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이바첸코 태평양 국립대학교 총장 등
6.16 (화)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주 영빈관	(09:00 ~ 19:00) 제2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 (제5차 한·러 극동포럼)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크 총영사)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김성귀(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박광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
6.17 (수)	하바롭스크	인천	하바롭스크	(09:00~12:00) 현장조사 (15:00) 하바롭스크 출발	극동포럼 참석자 전원

III. 수행사항

1. 한 · 러 다이얼로그

□ 일시 및 장소: 2015. 6. 15(월) 17:00~19:00, 하바롭스크 소재 하바롭스크주 영빈관

□ 참석자:

○ 한국측 :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 한우석 박사,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이석배 총영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박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전준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 김춘선 인하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규영 서강대 교수, 박희성 동서발전 상생조달처장 등

○ 러시아측 :고르챠코프 연해주 의회 의장, 오가이 국립해양대 총장, 칼라시니코프 하바롭스크주 부지사, 쿠쉬나료프 하바롭스크주 투자발전청장, 시도렌코 극동개발기금 대표, 지우소프 극동시장연구소 소장, 아브라모프 극동대학 교수, 예로힌 어니스트영 대표 등

□ 요약

○ (극동포럼 관련) 다이얼로그 참석자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되어온 한-러 극동포럼은 우리와 러 극동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러시아의 새로운 극동개발정책 하에서 동 포럼을 지속 개최, 양국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 발굴하는 협의체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극동포럼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측 기업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한-러 협력 평가 및 협력제고 방안) 러 극동지역이 한국과 러시아의 물적, 인적 교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호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협력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교역?투자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견해와 함께 농업협력(연해주),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과 같은 파급효과가 큰 협력의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공감함.

- 협력제고 방안으로 한국 측은 정경분리 원칙하에 2013년 합의한 30억불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 가동, 한국 내 민간자금의 對극동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장기사업 추진 등을 거론

- 특히, 원화 평가절상, 우리 국내의 낮은 이자율 등으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해외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러 측으로서는 선도개발구역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적의 개선하여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 강조
- 러시아 측은 한국의 북극해 자원, 북극항로 개발 참여, 제조업, 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극동 내 미개척 시장에 대한 과감한 선도적 진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선도개발구역 관련 각종 혜택을 실수와 예외 없이 적의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개진

ㅇ(극동개발정책 관련) 극동개발부의 핵심과제는 아태지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3대 이니셔티브(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동방경제포럼)를 적극 추진,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함.

-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진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적으로 러시아 상황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잠재투자자에게 협력의 구체 방식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참석자별 세부 토의내용

1) 한국측

가. 유장희 매일경제 고문

ㅇ제5차 한-러 극동포럼이 하바롭스크시에서 개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함. 하바롭스크시에 계룡건설(주택사업), LS 네트웍스(환경사업) 등 우리기업이 진출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 이번 제5차 포럼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국간 협력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극동개발 관련 사업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함.

나. 본직

ㅇ극동지역이 한-러 교역(2014년 258억불)의 약 40%, 인적교류의 약 52%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교류협력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하지만 투자 부문의

협력은 상호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어 동 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양국 간 노력이 필요함.

- 투자 분야에서 효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축적이 매우 긴요한 만큼, 러 측으로서는 러 극동지역에 기투자한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 공장 등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이의 해결을 위한 충실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ㅇ최근 들어 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극동 선도개발구역 설립,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 등 극동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향후 한-러 극동간 투자협력 증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극동지역과 동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한국정부와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바, 금번 포럼을 통해 협력 확대를 위한 진지한 토론과 구체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

다. 김성귀 해양수산개발원장

ㅇ2011년부터 한-러 극동포럼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한국의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러 극동지역 간 협력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임.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과 러 정부의 신동방정책 추진으로 호혜협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정부가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ㅇ양국 간 경제협력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 역내 협력과 함께 한반도 연계성을 통한 역외협력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

- 지난해와 금년 사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으로 수출(금년 수출량 약 150만톤 예상)하는 성과가 있었는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반이 확실히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아울러 한국의 금리인하(1.5%)로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해외투자처를 적극 모색해야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시, 러시아와 같은 자원부국에게는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라. 박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ㅇ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UN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평가임.

- 이런 점에서 하바롭스크주를 포함한 극동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도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및 다양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때문임.

- 이번 포럼이 개도국에 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좋은 모델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마.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ㅇ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달러화 유입, 원화 평가 절상과 함께 일본의 엔화 약세로 인해 국내투자와 수출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으로서는 해외투자를 통해 원화 평가 절상을 극복할 수 있는바, 조만간 투자 확대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러측으로서는 투자환경 조성, 투자 성공사례 축적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한국내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

ㅇ한국의 대외투자 확대 방안과 결부할 때 현재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극동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 특히 극동지역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시 최근 인프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추세에 따라 민간자금(private funds)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바. 김춘선 인하대 교수

ㅇ한국과 러시아는 수교한지 25년이 되어 다방면에서 관계의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

- 양국 간의 이해관계 일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기대

ㅇ러 극동지역은 잠재력에 비해 투자 재원 부족한 곳임. 동 지역에서 한국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의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러시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하에 지난 2013년 정상회담시 합의한 30억불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시킬 필요

사. 이규영 서강대 교수

ㅇ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 잠재력에 비해 상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음.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중 러시아의 비중이 나머지 3개 국가보다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임.

ㅇ정부와 기업 차원의 미시적, 단기적 실질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러시아와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래세대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장기사업 추진이 더 긴요하다고 생각함.

2) 러시아측

가. 디아노프 하바롭스크주 국제지역협력장관

ㅇ한국은 하바롭스크주의 제2교역국으로 상호 상품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對하바롭스크주 한국의 누적투자액은 7,800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3%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경제협력 분야에서 주택사업(계룡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공항 현대화 마스터플랜 마련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였고, 공항도시 건설사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롯데, LS 네트웍스 측과 협의 중
- 자매도인 경상남도와의 협력, 세종병원의 하바롭스크 건강검진센터 건설 참여, 대학생, 문화예술인 상호방문 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

ㅇ상기 불구하고 한-하바롭스크주 간 대규모 산업,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 추진사례는 없는 상황인바, 하바롭스크주는 한국이 하바롭스크주에 설립되는 선도개발구역에 주요파트너로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하바롭스크주 등 러 극동지역의 낙후한 인프라, 통관문제, 토지사용의 어려움 등 여전히 투자여건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선도개발구역 지정으로 이를 타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바, 한국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기대

나. 고르차코프 연해주의회 의장

ㅇ한국과 러시아는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임. 연해주에 진출하고 있는 17개 한국 영농기업(투자 규모 약 20억 루블)은 곡물, 감자, 채소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으며, 한국으로 옥수수, 콩을 수출하고 있음. 본인이 농업을 언급한 것은 농업이 다자협력에 유리하기 때문임.

- 이와 관련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하는 시범사업에 북한당국과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

ㅇ지난해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이 채택되었고 연방정부의 큰 관심 속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이 마련됨. 대규모 외국투자 유입여부는 러시아 상황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동 법 이행 과정 중에 외국파트너에게 협력방식과 구체방향(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등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실수나 예외 없이 적의 적용해야하는 만큼, 극동지역에 기투자한 한국 등 기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9월초 동방경제포럼이 외국투자자들의 불평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다. 한 드미트리 사할린주 투자대외관계차관

ㅇ2014년 기준, 사할린주-한국간 교역액은 전년보다 11.5% 증가한 7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사할린주의 석유가스, 수산물의 주요시장임. 사할린주에 대한 한국의 누적투자액은 1.3억불로 지하자원(석탄), 수산물,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짐.

- 삼성 C&T는 우글레고르스크항 인프라 개발에 5천만불을 투자하였고, 한국 업체가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쿠릴열도 항만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LS 네트웍스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건강검진센터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
- 사할린국립대-한국내 대학 간 교원연수 및 학생교류, 제주도와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산시와 문화행사를 겸한 비즈니스 설명회 공동개최를 희망하고 있음.

라. 라키포프 극동개발부 투자수출지원국 부국장

ㅇ극동개발부의 핵심과제는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며, 한국은 동 지역 내 러시아의 주요 협력파트너임.

ㅇ극동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법 채택,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마련, 동방경제포럼 개최 등 3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과제를 실현해나갈 계획임.

- 9개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은 정부 승인을 얻어 내일(6.16) 하원 심의 예정임. 동방경제포럼은 대통령령에 따라 9.3-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로 개최 예정인바, 한국 측의 적극 참여를 기대

마. 자우사예프 극동시장연구소장

ㅇ1960년대 러북 협정에 따라 아무르주 등 극동지역에는 수만 명의 북한 벌목공이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도 25년 동안 임업 분야(연해주 테르네이레스 등)에서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음.

중국은 철광산 개발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기업인들은 그동안 석유화학, 비철금속 개발 분야에서 수많은 협상을 해왔음. 이는 위험이 수반되는 장기사업이지만 5-10년 후에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음.

- 또한, 극동지역에서 건축자재, 원자재 가공, 도로건설 등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바, 한국기업이 미개척 시장에 진출한다면 극동 지방정부의 후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국내투자의 어려움을 타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

바. 미나키르 극동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장

○ 기업은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투자 논의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이 포럼에 기업인들의 참석이 없는 것은 유감임.

○ 한국은 오랜 노력의 결과 북극해 옵서버 지위를 얻음. 북극해 자원, 북극항로 개발에 있어 한국은 미국, 캐나다보다 러시아와 협력이 용이할 것임.

-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략적 파트너로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하며 한국 자본의 러시아 유입이 필요함. 만일 한국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원자재 분야가 아닌, 원시안적 측면에서 수출 지향적 산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인프라 분야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 다이얼로그 회의장

▲ 다이얼로그 회의 이후 단체사진 촬영

2. 제2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15. 6. 16(화) 09:00 ~ 19:00, 하바롭스크 소재 하바롭스크주 영빈관

□ 참석자:

- 한국측 :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 한우석 박사,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이석배 총영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박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전준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 김춘선 인하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규영 서강대 교수, 박희성 동서발전 상생조달처장 등
- 러시아측 :고르챠코프 연해주 의회 의장, 오가이 국립해양대 총장, 칼라시니코프 하바롭스크주 부지사, 쿠쉬나료프 하바롭스크주 투자발전청장, 시도렌코 극동개발기금 대표, 지우소프 극동시장연구소 소장, 아브라모프 극동대학 교수, 예로힌 어니스트영 대표 등

□ 주제발표 및 토론

1) 기조발표 (시도렌코 극동개발기금 대표)

- 기조발표자는 푸틴 대통령이 러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극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극동지역에서 아태지역국가와의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 해소,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자본, 노동, 투자,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또한 러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으로 극동개발부 및 극동개발기금 설립, 극동지역내 경제 전략의 핵심도구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도입 노력을 설명하면서 극동개발기금이 아태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민간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함.

2) 제1세션

가. '러시아 경제현황 및 주요협력 동향' 발표 (미나키르 극동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장)

- (극동지역 경제정책 평가) 러시아의 新동방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닌 오래전에 진행되던 정책임. 그간 극동지역은 원자재 수출 우선정책에 기인하여 러 전체 평균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

- 2011~2012년 동안 거시경제 환경이 타격을 받으면서 극동지역 개발정책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서 선도개발구역정책과 같은 제도적 혁신으로 선회하였으나, 동 정책은 20세기 한국, 싱가포르, 프랑스 등이 지역개발 방법의 하나로 채택한 정책과 유사하며, 세금우대, 행정적 편의 제공만으로 특별한 결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임.

ㅇ(러 극동지역 개발정책 방향) 기업들은 오래 동안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만큼 기업 활동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며,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을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Spillover)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현재의 선도개발구역이나 자유항은 세제 및 행정적인 혜택이 파격적이 아닌 만큼 각 지역별로 노동비용, 전문노동력 확보, 수익성, 재산권 확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강력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투자제도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ㅇ(러 경제 진단 및 개선방안) 현재 전반적이 경제상황은 서방의 경제 제제 문제로만 기인한 것이 아니며, 1998년 이후 채택된 경제 모델에 기인함. 2011년 이후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내부수요 침체와 투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성장률은 침체를 겪고 있음.

- 서방의 금융제재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기회가 박탈되고, 부채 피라미드가 붕괴되며, 루블화 평가절화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2015년 3분기부터는 침체가 두드러질 것임.
- 러시아가 원료공급 경제로부터 탈피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를 갖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창의적인 인재육성정책이 필요.

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러 경제협력 전망'발표(성원용 인천대 교수)

ㅇ(한-러 경제협력의 현황)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에 기반하여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그 잠재력 실현이 한계에 봉착

-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제약요인으로 △남북관계 등에 따른 육상 협력루트 부재, △상호간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열악, △전통적 협력방식에 따른 교역 및 투자 확대의 한계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유가, 루블화 하락 등에 따른 러 국내 경제위축, △우크라이나 사태 및 EU, 미국의 대러 제재 등 러시아의 국내적 상황도 교역 및 투자 분야의 한-러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2015년 현재 우리의 대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8%, 수입은 27% 감소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를 위해해서는 기존의 교역 및 투자 증대 외에 i)국가간 정책·전략의 조화, ii)다자간 협력 확대, iii)실질적 경제협력 가능성 모색, iv)남·북·러 3각 협력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국가간 정책·전략의 조화) △한국의 창조경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유사점, 접점에 기반한 상호협력 확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필요
- (다자간 협력 확대) △양자협력 차원에 집중된 한-러 관계를 지역간, 다자간 협력으로도 확대할 필요

※ 예 :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지역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횡단철도, GTI 등(다자협력)

- (실질적 경협 가능성) △에너지·자원, 원자력, IT, 우주기술, 의료 분야 협력, △한국의 극동 내 선도개발구역 참여, △정부 및 민간과과의 금융협력 체제 구축
- (남·북·러 3각 협력) TKR-TSR, PNG, 전력망 연결 등 3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경제적 측면 외에 전략적, 지경학적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미나키르 원장 발표

▲ 성원용 교수 발표

다. 한국측 토론(양기모 KOTRA 블라디보스톡 관장)

ㅇ그 동안 한-러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양국간 육상협력루트 부재, △열악한 상호 연결 교통·물류망, △국제유가 하락 및 대러 제재 등으로 인해 협력에 제약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정책 및 전략의 조화, △다자간 협력 확대, △에너지, 자원, IT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 모색, △극동지역에서의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안함.

라. 러시아측 토론(코치마소바 극동국제물류센터 소장)

ㅇ러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정책이 세금우대, 다양한 행정적 지원 등 차별성을 갖고 있으나, 동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금우대, 행정적 편의 제공만으로 특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에 보다 광범위한 사업 참여기회 부여, △지역별 비교우위 분야 파악·활용, △강력한 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 및 공공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 및 창의적인 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함.

3) 제2세션

가.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추진동향'발표(라키포프 극동개발부 부국장)

ㅇ(선도개발구역의 의의 및 추진배경) 라키포프 부국장은 선도개발구역을 통해 기존 극동지역이 안고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극동 지역의 주요한 문제점들 중 특히 △해외를 포함한 민간의 투자 유치, △호혜적 경제활동 환경 조성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함.

- 과거에도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탈규제화 및 탈관료화 노력은 있었으나, 10여년전에 비해 극동 지역에는 각종 인프라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도개발구역 제도의 성공적 추진 확신

ㅇ(각종 혜택 및 우대조건) '라' 부국장은 선도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및 우대조건 등에 대해 △규제 완화,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중심으로 설명함.

- 극동개발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입주기업에 대한 여타 법집행기관의 어떠한 감사(inspection)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 입주 기업들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 일원화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축 허가 및 세관 통관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의 신속화 도모
- △최초 5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 토지세 면제, △수출입 관세 면제, △사회보장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토지 및 각종 인프라 사용 등에 있어 우대조건 적용

ㅇ(9개 선도개발구역 선정) '라' 부국장은 현재 극동지역내 농업 및 임업, 물류, 광업 등에 특화한 9개의 선도개발구역을 우선 선정한 바, 하바롭스크 지역의 경우 싱가포르 등 외국 기업들이 관심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동 지역내 비닐하우스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으며,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 사업에 '소지츠' 상사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

- (하바롭스크주 2개 구역) △'콤소몰스크 구역'은 공업 분야,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관련 부품, 전력 및 각종 기계 장치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육성하고, △'하바롭스크 구역'은 공업 및 물류 분야, 즉 금속 및 철강, 건축 기자재, 농업단지 조성, 물류 및 보과 터미널 구축,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 등에 대한 프로젝트 실시 예정
- (연해주 2개 구역) 연해주는 부동항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 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데진스크 구역'은 경공업 및 식품산업, 물류에 특화한 지역으로 개발하고, △'미하일롭스크 구역' 축산 농장(돼지 사육 등), 곡물 생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 프로젝트 실시 예정

나.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추진방향'발표(국토연구원 한우석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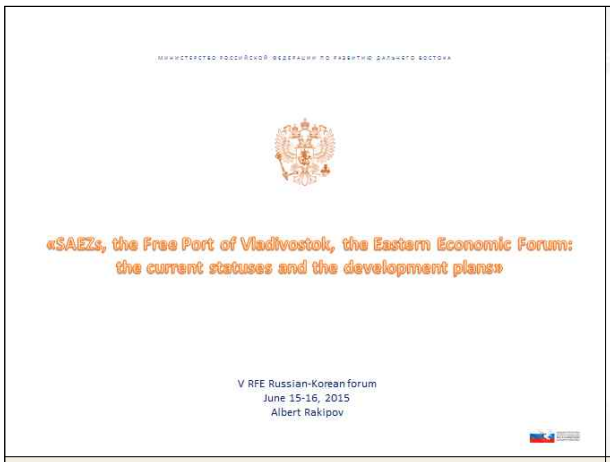
ㅇ(국제협력 사례 및 시사점)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으로 러시아와의 협력방안을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한국기업이 극동러시아 지역에 진출했지만, 효율적 협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

- 한국석유공사, 한국 서부발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조선소 건립, 포스코의 엘가 광산개발 등 극동러시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정치외교적 문제(북한 등), 국제협력을 위한 협상 및 조정기구의 미흡(부족한 자금력, 국제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추진력 결여), 열악한 투자 및 사업환경(철도,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의 낙후성, 통관절차의 비효율성, 투자자를 위한 보호제도의 취약성) 등은 해결해야할 당면 문제임

ㅇ(지역개발 관점에서의 한러협력 방향)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지역개발 방향과 한러협력의 전략

등을 제시하고, 한러협력 전략과 우선협력 예상지역 등에 대해서 제시

- 자원 및 에너지개발, 산업개발, 교통/물류/인프라개발, 도시 및 주택개발, 관광개발 등 주요 5개 분야와 연계한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 성장거점 전략,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적극활용 등 한러협력의 전략을 제시



▲ 라키포프 부국장 발표

▲ 한우석 박사 발표

다. 한국측 토론(정일호 국토연구원 박사)

ㅇ러측의 선도개발구역 전략이 한국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집중 실시된 '성장거점 육성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존 한러간 경제발전경험 공유 프로젝트(KSP) 또는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한국의 발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주력 구역 및 프로젝트 선정, △산학 협동의 클러스터 개발전략, △사회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보완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함.

- 현재까지 선정된 9개의 선도개발구역은 (우선순위 없이) 상호 병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중 핵심적으로 추진할 주력 프로젝트(anchor project)를 선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주변 지역 또는 여타 선도개발구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spill-over)를 극대화할 필요
- 또한, 선도개발구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기존 산업 및 연구 기반을 충분히 고려한 구역 선정, 특히 해당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형(Research and Development)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전략 수립이 바람직

- 선도개발구역(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은 명칭과 같이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즉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 및 의료, 교육 인프라 등의 구축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의 극동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투자 유치 및 경제발전이라는 전략과 상승 효과를 발휘토록 유도

라. 러시아측 토론 (차이카 하바롭스크 투자장관)

ㅇ자유항 지정에 대한 러시아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크며, 이는 곧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으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다만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현성 높은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함.

- 한편, 최근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경향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자산 가격 하락 측면에서는 러시아 국내에 대한 투자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4) 제3세션

가. '러시아 환경관리 정책방향'발표(미르제하노바 극동 과학아카데미 수자원생태 박사)

ㅇ(환경관리와 지역 환경정책) 환경관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국가개발 방향에 부합한 환경정책의 틀 안에서 기업의 자연보호 활동을 관리하는 현대적 체계임.

- 러시아내 환경관리는 2002.8월 정부령으로 채택된 국가 환경독트린에 근거하여 국가,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
- 지역 환경정책은 △지역적 특성 고려 여부, △개발의 우선순위 부여, △환경보호, △자속가능한 자원이용 보장,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등을 규정한 광범위한 시스템임.

ㅇ(지역 환경정책 구조 및 특성) 일반적으로 지역 환경정책 구조는 별도의 블록(영역)으로 표현되며, 상호 밀접한 통합 시스템을 내포하는 것으로 각 블록은 지역 환경정책구조의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독립적 서브시스템을 보유

- 일부 지역은 지역적 특성,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계획된 활동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특수지역을 규정

ㅇ(新개발구역 내 지역 환경정책) 새롭게 개발되는 구역에서 지역 환경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종종 사업에 대한 투자매력과 환경기준·규정간에는 충돌이 발생

- 새로운 개발구역 내 환경정책은 △단기, 저비용 개발 사업, △자원가공 위주의 제조업, △실제 과다 환경비용 투입사업, △대규모 환경활동 동반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ㅇ(제안 사항) 지역 환경정책은 △특정목표와 특정구역을 지향할 경우에만 효과적이고, △자원 중심의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생태학적으로 균형 있는 지역정책 수립이 필요

나. '지속가능한 동북아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국제협력'발표(이정석 KEI 박사)

ㅇ(동북아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동북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 △산업화, △대규모 프로젝트(가스관 사업 등) 추진 등에 따라 월경성 환경영향 이슈가 발생하여, 동북아 내 다자간 국제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러 극동지역 도시화 및 환경 문제) 극동지역 도시화의 주요 특징은 △인구 감소, △농촌 이민인구의 감소, △계획경제에 따라 주민들의 산발적 소도시 정착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도시화로 인해 토지·수자원·공기 오염 및 쓰레기 문제 발생(극동에서 연해주의 육상, 해양 오염이 가장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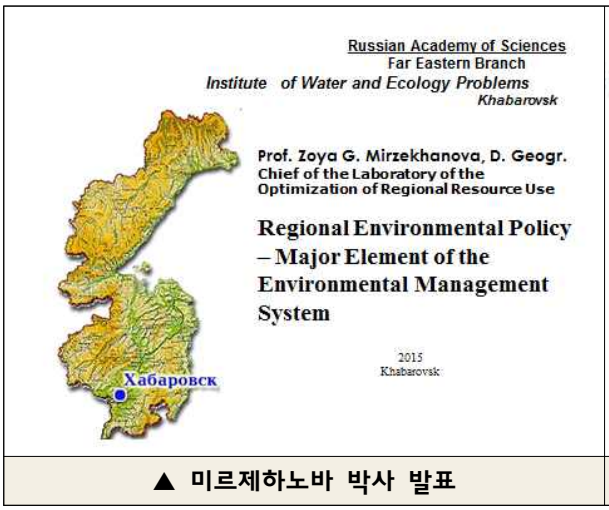
- 공기오염(발전소, 난방시스템, 자동차), 수질오염(광산개발 등에 따른 중금속 오염, 송유관, 가스관 건설) 및 식수 부족, 생활쓰레기 처리 등이 실제적 문제

ㅇ러 극동지역의 수자원 관리, 생활용수 및 쓰레기 처리, 천연가스 차량 운영 등 대중교통분야의 환경산업은 초보단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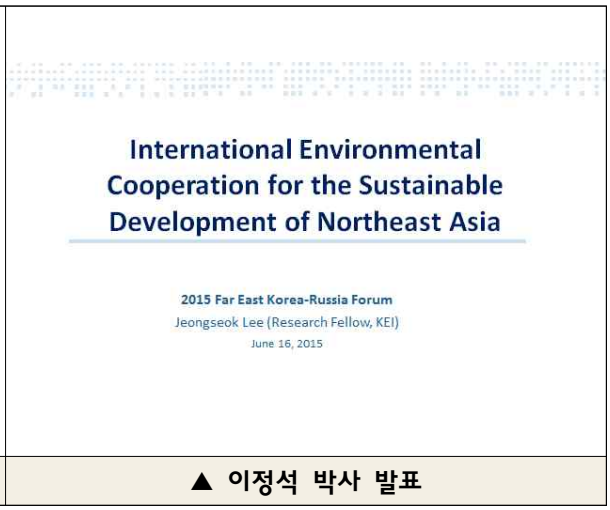
- △수자원 관리(폐수의 51.5%가 정화 미처리, 물 공급 시스템의 40%가 현대화 필요), △쓰레기 처리(전체 쓰레기 매립지 중 1% 정도만이 재처리 시설 보유), △대중교통(천연가스 차량의 전체 차량의 0.5%, 246개의 CNG 충전소 설치)

ㅇ(협력 방안) 한국이 수자원 관리 분야 등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환경 인프라 분야에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을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시, 동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조달시장의 경우 러 정부가 조달시장 개방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아직 러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바, 외국기업은 간접적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



▲ 미르제하노바 박사 발표



▲ 이정석 박사 발표

다. 한국측 토론(전동준 KEI 실장)

○ 하바롭스크주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 러 극동지역에서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철도연결, 가스관, 송유관, 경제특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 사전예측 및 대책 방안을 제안함.

- △양국 환경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해 향후 공동 개발사업에 대한 제약 및 해결방안 모색, △동북아 국제사업에 대한 환경분야 원칙 마련 및 협의체 구성 등 공동대응 체제 구축, △아무르강 일대 생태계 공동 연구, △양국간 생태관광사업 확대 등

라. 러시아측 토론(보로노프 극동과학아카데미 수자원생태문제연구소장)

○ 수년전 중국 길림성 화학공장 사고로 아무르강이 독성물질로 오염된 사례를 들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간 공조,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노력도 미흡한 실정으로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 분야 공동연구사업(예 아무르강 오염, 홍수 방지 관련)을 제안함.

5) 제4세션

가. '한러 극동물류시장 협력방안' 발표(라자레프 국립해양대 교수)

○아시아 국가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자국 내 대규모 산업이 육성되고, △ 물류비가 절감되며, △세계 경제의 권역화(아시아는 산업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은 서비스산업 중심 재편)가 유도되는 효과가 발생함.

- 통계적으로 물류비 10% 절감은 소비가격의 1.5-2%의 하락을 가져옴.

○한국과 러시아는 자동차·철도 등 육상, 항공, 해상 분야의 교통·물류 분야 협력이 유망함.

- (자동차) 철도 대비 비용은 비슷하나 속도, 안정성, 예측가능성 면에서 강점이 있어 장거리 물류시장에서 여전히 전망 보유
- (철도) TSR의 통과 능력 포화 및 운송 속도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철도 화물의 75%가 원자재(컨테이너는 9%)
- (항공) 하바롭스크공항 운영, 대한항공-아에로플로트(Aeroflot)간 항공운송협력 등 한-러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임.
- (해운) 극동 내 항만 현대화, 컨테이너 운반선 건조, 북극해 자원 보존 등 북극해 개발 및 북극항로 분야 협력 가능성 존재
- (선도개발구역)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계획

나. '극동러시아 물류시장 진출성공사례와 시사점' 발표(이성우 KMI 실장)

○(물류협력의 필요성) 한-러간 물류협력은 △국가간 장벽 완화에 따른 국제교역 증대, △물류시장의 빠른 성장, △러 극동지역을 포함한 북방 물류시장의 잠재력을 감안시 협력 강화가 필요

- 특히 한국은 극동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치 등 新개발정책에 부응한 물류사업 추진이 필요

○(러 물류시장 현황) 러 물류시장은 모든 경제 부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러 전체 물류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1.6% 증가한 2.12조 루블에 달하나, 지역간 물류 인프라 불균형 문제는 해소 필요

○(성공 및 실패 요인) 우리 기업의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 성공요인으로 △현지화 추진, △경영권 확보, △철저한 사전 분석 및 안정적 공급 조달 등을 들 수 있으며, 실패 요인으로 △사전 조사 부족, △한국적

사고와 러시아적 사고의 차이로 인한 상호간 신뢰부족 등을 들 수 있음.

○(러 극동지역 진출방안) 한국기업의 극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 노력 와에 △법률서비스, 투자안정, 정보 제공 관련 정부지원, △민관 지원체제 구축(기진출 기업 권익보호, 진출국 법률상황 교육), △투자 장려정책, 통관간소화 관련 양국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 선도개발구역이나 자유항 지역에 대해 한국기업의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세부적 정비(예 : 나데진스키 창고 환적화물의 통관제도)가 필요하고, 한·중·일 물류 논의에 러시아의 참여가 필요함.

▲ 라자레프 교수 발표

▲ 이성우 실장 발표

다. 한국측 토론(김춘선 인하대 교수)

○(김춘선 인하대 교수) 물류 분야는 러 극동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TSR 철도의 2층 컨테이너 운송 기법 연구, △해상(항만) 인프라, 운영시스템 개선, △통관시스템 개선, △양방향 물류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선도개발구역은 9개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보다 항만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맞춤형으로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진-하산 물류사업, 자루비노항, 북극항로 개발 등은 다자간 협력이 중요하고, 미시적 및 거시적인 측면의 동시 접근이 필요함.

라. 러시아측 토론(세메니힌 극동해운항만연구소장, 빅토로프 하바롭스크주 비상상황부 대변인)

○(세메니힌 극동해운항만연구소장) 물류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화물 이동속도가 10% 증가할 경우

GDP가 4% 증가)을 담당한다면서 현 러시아 물류시스템이 구소련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 및 투자부족 문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물류 분야에서 국가간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함.

- 러시아의 유라시아 관세동맹 출범, 금년 5월 러-중간 신실크로드 추진, GTI 활성화 관련 공동성명 채택,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 등 현재 러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에서는 큰 틀에서의 새로운 물류지도가 그려지고 있음.
- 물류협력에 참여하는 각 나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복합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 정부간 물류 논의에 러시아의 참여가 필요함.
- 특히 러시아의 현 상황으로는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한 항만 시설을 도입하기 어렵다면서 한-러간 물류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국간 극동항만 개발에 대한 시각차(예 : 극동항만 개발의 경우 현재 러시아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이나, 한국의 경우 미시적인 기술적 문제를 지적)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함.

6) 제5세션

가. '러 극동지역 전력 개발 전망'발표 (쿠테포프 RAO 전략국 부장)

ㅇ극동지역 최대 전력공급회사인 RAO 동부에너지시스템社는 △선도개발구역 선정에 따른 추가 에너지 공급량 확보, △노후화된 시설 교체, △재생에너지 개발, △안정적인 미래 전력수요 확보 등 극동지역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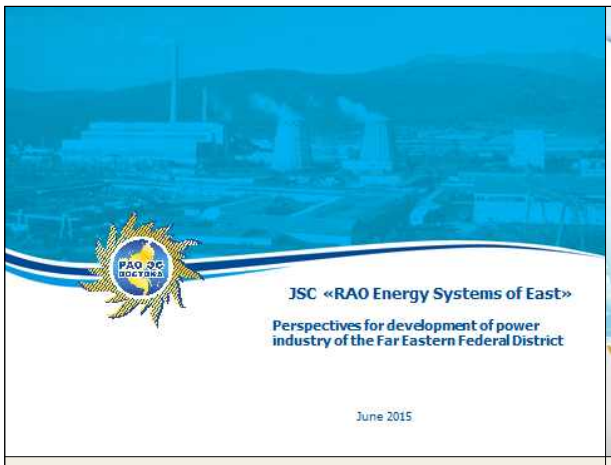
- 극동지역의 경우 △절반이 넘는 발전소 시설들이 30년 이상의 노후화 장비들이며,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열악한 기후 조건에 따른 설비 유지 및 보수비용 급증, △높은 전력요금의 미수금 비율 등의 과제들도 안고 있음.

ㅇRAO社는 안정적인 미래 전력수요 확보 차원에서 한중일 등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력 수출 방안 검토 중이며, 특히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에 최대 850MW규모의 전력 공급 계획을 갖고 있음.

-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전력 공급은 △제1단계에서 15MW(2016년), 80MW (2018년), 250MW(2019년)으로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제2단계인 2021년까지는 최대 850MW 규모로 확대해 나갈 예정
- 기존 연해주 지역의 전력망 및 네트워크를 일부 보수하여 활용하되, 풍력발전을 포함한 연해주내 새로운 전력시설 구축도 상정

나. ‘한러 극동지역 전력 협력 방안’발표 (마용선 에경연 박사)

ㅇ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총 2-5GW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사업(energy bridge project)인 ‘2035년 한반도 에너지 마스터플랜(Korea Energy Masterplan to 2035 year)’이 있으며, 동 프로젝트에서는 △평양 경유 노선, △동해연안 경유 노선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쿠테포프 부장 발표

▲ 마용선 박사 발표

7) 종합토론

가. 이규영 서강대 교수

ㅇ푸틴 대통령을 포함하여 러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발타이’ 포럼에서 모스크바(정치·군사), 상트페테르부르크(문화·사법)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경제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러시아에 있어 극동지역은 성장의 거점인 것만은 분명하나 최근 십수년간 25%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기대와 리스크가 공존함.

ㅇ러 극동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러시아로서는 유럽국가와의 협력을 일정 유지하는 가운데 동북아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동북아 국가와 양자협력을 확대하되 에너지, 환경 등 특정분야에서는 다자협력 모델을 구축
- 에너지, 자원 분야 신규개발은 장시간이 요구됨으로 패키지형으로 발굴하여 기업과 국가가

동시에 진출하는 방안을 마련

- 한-러 관계 증진 관련, 긴밀한 협력은 서로를 더 잘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 4강 중 러시아에 대한 상대적 낮은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나. 성원용 인천대 교수

○ 한-러 극동지역간 협력 관련, 에너지, 물류, 환경 등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공감하나, 협력 추진방법과 실효성 측면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극동개발 관련, 9개의 선도개발구역은 '종합선물세트'와 같아 향후 추진시 애로가 예상되며, 수출지향, 자본 또는 기술 유치라는 특정목표를 지향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극동개발의 어려움 중 하나인 충분한 인력 확보문제 해결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이는 지역주민의 실업을 초래하는 상충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조건의 획기적 개선이 중요함.

다. 예로힌 어니스트앤영 블라디보스톡 대표

○ 러 극동지역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극동포럼에 양국 기업인들의 참여가 없는 것은 포럼의 성과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봄.

○ 러 정부도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내 세제, 통관, 인프라 개선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동 개선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최근 극동개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도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간 교류협력이 가속화되는 것은 긍정적 현상으로 평가됨.

- 러 정부가 선도개발구역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시행령 등 구체 실행 메커니즘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러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첨단 외국기술 도입 및 인적자원 확보 문제 등을 선결과제임.

○ 러시아 경제가 위축되었으나, 루블화 하락 등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도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이 틈새시장에 적극적 진출이 요망됨.

라. 자우사예프 극동시장연구소장

○ 역사적으로 극동개발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왔으며,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개발에 많은 초기비용이 소요됨.

- 극동개발에 있어 노동력 확보는 핵심과제로서 동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움.

ㅇ지난 2012년 극동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현재 전문가들이 동 프로그램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중으로 동 프로그램 채택시 3개의 극동지역 발전 시나리오를 상정함.

- 수출 지향적 특화지역 조성 : 수출산업 육성,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재정확보에는 유리하나 인구유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 아태지역 경제와의 통합을 위한 교두보 역할 : 주변국과의 대외교역 확대를 위한 교통물류망 구축, 동시베리아송유관, 가스관, 전력망 연결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가공산업 육성
- 러시아 경제의 미래 기관차 역할 :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원 투입으로 전통산업 외에 수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등 주변국의 수요를 충족하는 경제 환경과 인구 분야에서의 질적, 양적 성장 등 최적의 생활 여건 조성.

Ⅳ. 부록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 일정>

시간 및 식순	세부 프로그램
리셉션 (09:00 ~ 09:30)	• 참석자 등록 및 자료 배포
개막식 (09:30 ~ 10:00) (사회: 박종호 KRBC 대표)	• 주요 참석자 소개 • 개회사 :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환영사 : 하바롭스크 주정부 • 축 사 :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기조발표 (10:00 ~ 10:15)	**< 기조발표 : 극동러시아 개발전략과 한러 경제협력 방향 >** • 기조발표 : 시도렌코 극동개발기금 대표
10:15 ~ 10:20	사진 촬영
제 1세션 (10:20 ~ 11:20) 좌장 : 윤창현 교수	**< 제 1세션 : 경제환경 변화와 한러 경제협력 방향 >** • 주제발표 1 : 러시아 경제현황과 극동개발정책(미나키르 하바 경제연구소장) • 주제발표 2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러교역 방향 전망(인천대 성원용 교수) • 토론자 : 한측(양기모 KOTRA 블라디보스톡 관장), 러측(코치마소바 극동국제물류센터 소장)
제 2세션 (11:20 ~ 12:20) 좌장 : 김동주 KRIHS 부원장/아브라모프 박사	**< 제 2세션 : 극동러시아 지역개발과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추진 동향 >** • 주제발표 1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추진 동향(라키포프 극동개발부 부국장) • 주제발표 2 :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추진방향 (한우석 국토연 박사) • 토론자 : 한측(정일호 국토연 박사), 러측(차이카 하바롭스크 투자장관)
오찬 (12:40 ~ 14:00)	인투리스트(러시아 식당, 인투리스트호텔, KMI 주최)
제 3세션 (14:00 ~ 15:00) 좌장 : 박광국 KEI 원장	**< 제 3세션 : 러시아 환경관리정책 현황 및 동북아 협력 방안 >** • 주제발표 1 : 러시아 환경관리정책 방향(미르제하노바 극동 과학아카데미 수자원생태 박사) • 주제발표 2 : 지속가능한 동북아개발을 위한 환경관리국제협력(이정석 KEI박사) • 토론자 : 한측(전동준 KEI 박사), 러측(보로노프 극동 과학아카데미 수자원생태 소장)
제 4세션 (15:00 ~ 16:00) 좌장 : 김성귀 KMI원장	**< 제 4세션 : 극동러시아 물류진출 사례분석 및 협력사업 제안 >** • 주제발표 1 : 한러 극동물류시장 협력방안(라자레프 국립해양대 교수) • 주제발표 2 : 극동러시아 물류시장 진출성공사례와 시사점(이성우 KMI 실장) • 토론자 : 한측(김춘선 인하대 교수), 러측(세메니힌 극동해운항만연구소장, 빅토로프 하바롭스크주 비상상황부 대변인)
16:00 ~ 16:20	Coffee Break
제 5세션 (16:20 ~ 17:20) 좌장 : 칼리시니코프 하바 부지사	**< 제 5세션 : 한-러 전력 에너지 협력 방안 >** • 주제발표 1 : 러 극동지역 전력 개발 전망(쿠테포프 RAO 전략국 부장) • 주제발표 2 : 한-러 극동지역 전력 협력 방안(마용선 에경연 박사) • 토론자 : 한측(박희성 동서발전 처장), 러측(아그뇨프 경제연구소 박사)
종합토론 및 정리 (17:20 ~ 18:00)	**< 종합토론: 극동포럼을 통한 한러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 좌장 : 유장희 상임고문 • 토론자 : (한측) 성원용 인천대 교수, 이규영 서강대 교수 (러측) 예로힌 어니스트영 대표, 자우사에프 극동시장경제연구소장 • 종합정리
이동 및 만찬 (18:30 ~ 20: 30)	코리아하우스(한식당, 인투리스트호텔, KMI 주최)